

연구 논문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심 옥 주*

1. 서론
2.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과 제주
3. 제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4. 결론: 제주 독립운동의 함축적 의미

1. 머리말

한국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일본을 주축으로 제국주의 침략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족적 반제저항(反帝抵抗)이 고조된 시기였다. 19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은 외세와 자존, 자립이 요구되는 구도 속에서 국가위기상황을 감내해야 했고, 1905년의 을사조약강제체결이후 국권상실에 이르기까지 민족생존과 국가보전을 위한 전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일관했다. 특히 한말의병운동에서 우리 민족은 계층과 성별을 초월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근대적 역량을 확보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을 추구했다. 의병운동에서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항일구국운동은 급박한 국제정세변화에 놓여있었던 약소국의 현실을 탈피하고 민족 주체성확보를 위한 방어의 논리를 항일운동의 실천으로 찾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비록 의병운동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표출된 민족정신의 요체는 바로 한국민족주의 정신에 근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족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애국계몽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의 실천은 역사 속에 배태된 한국민족정신이 민족운동의 주류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연구는 시기적 특성만큼이나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제강점기는 민족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반외세·반저항운동의 전개 규모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다. 주로 시대변화를 흐름별로 분류하거나 시대의 성격을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연구가 정립되어왔으나, 이제까지 본토와 떨어져 있는 제주지역연구는 연구에서 관심 밖의 영역에 있었다. 대체로 지역학자들이 주도가 된 지역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제주지역연구를 한국민족운동사의 큰 흐름에서 살펴보거나 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에는 미흡했다. 다시 말해서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관한 분석이나 시기별 독립운동의 특성과 연계되는 연구는 부족했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 독립운동의 경우, 대체로 지역의 관점 위주로 반영되었고, 시기별 세부연구에 치중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조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제주 독립운동은 타 지역 연구에 비해 지역성과 특수성이 우선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 활동 양상만으로 본토의 성격을 대변하거나 본토의 활동양상과 같이 다루어지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주지역연구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별개로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를 한국민족운동의 흐름과 연계하여 해석함과 동시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민족운동으로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지역연구가 이중적 관점

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전체흐름을 조망하면서 제주지역만의 지역성과 특수성에 여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먼저 제주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독립운동의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주 독립유공자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역사와 세부적인 사건을 모두 규명하기보다 제주 독립유공자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지역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시도가 앞으로 탄력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민족운동사의 흐름과 제주지역의 시기별 특성을 같이 조망하여 제주 독립운동에 접근함과 동시에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2.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과 제주

1) 지정학적 특성

일제강점기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전략적 성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본토와 연계되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다. 특히 제주는 지리적 입지뿐만 아니라 섬지역의 특성상 자발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주로 섬지역은 외부로부터 경제적 원조보다 경제적 자립이 확연히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본토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과거부터 제주지역은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주 관심지역이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의 특성을 몇 가지의 시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전략적·산업적 요충지였다. 제주도가 정치적으로 주

변 국가의 관심대상이 된 것은 이미 역사적 사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과거 후삼국 시기에는 후백제에 복속된 지역이었고, 고려말기에는 몽고의 진출로 인해 지배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당한 지식인들의 유배지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적용된 지역이었다. 이런 여러 특성이 점철되어 제주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타 지역과 구분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주출신의 관료가 본토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토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서 지역 내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민란 발생이 잦았다. 그러나 본토와의 연계 구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주만의 특성이 있었다.

이런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특성을 간과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제주도를 조선과 중국, 일본 3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했고 일제강점기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인식 하에 제주도를 이용했다.¹⁾ 그래서 본토와 일부 폐쇄된 지역성으로 일본의 수탈이 본격화되자, 제주는 자체적으로 항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침략 정책을 추구하며 제주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제주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당시 발간된 신문자료에서 알 수 있다.²⁾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진출을 위해 제주도를 대륙진출발판지로 인식함과 동시에 자국의 본토방어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보았다. 그래서 제주도민을 이용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여 군사정비를 하거나 어족자원을 침탈하는 등 실질적인 약탈의 활용지로 이용했던 것이다. 즉, 일본은 제

1) 허호준,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 『한국민족문화』 40,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95쪽.

2) 일본 큐슈의 나가사키현에서 발간되었던 『진제이닛뽀(鎭西日報)』에서는 1885년 4월 15일자에서 “러시아가 욕심을 가지고 연안을 측량한다고 전해지는 조선 제주도는 우리 히젠(肥前)의 고토(五島)와 마주보고, 일본·중국·조선 3국 사이에 있어 군사 와 상업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鎭西日報』, 1985년 4월 15일자.

주지역을 지리적 인접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인식을 토대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둘째, 제주도는 외부세력의 교류지였다. 이미 제주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주요 요충지로 주목되면서 주변국가 또는 외부세력의 침략이 잦았다. 이런 경험사례는 제주도 주민이 스스로 존립과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시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외부에 대한 저항력을 자발적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완연했다.³⁾ 고려시기의 삼별초의 제주입거와 몽골족의 제주지배, 왜구의 침탈, 그리고 일제강점기에까지 제주도 주민은 외부침략에 대항하며 스스로 생존방식을 터득해갔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외부세력의 잦은 유입으로 근대문물의 유입과 수용이 용이했다. 잦은 외부세력의 왕래는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과 외부문물에 대해서 자연스런 수용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서 외부문물 유입의 범주는 제주를 중심으로 주로 제주로 유배를 온 지식인의 출현과 그 영향, 몽골, 일본, 기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문물 및 그 영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제주는 외부문화의 유입과 수용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수용문화의 자연스런 융합을 통해서 제주존립의 방향을 찾았는데, 이런 제주의 자발적인 존립의지는 독립운동에서도 발휘되었다.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일본침략과 강제인력동원 등의 수난 속에서도 수용과 유지를 위한 항전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제주는 본토와 다른 양상으로 민족독립의지는 피력되고 있다. 그것은 본토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제주특성이 발휘됨과 동시에 한국독립운동의 흐름에 편승한 독립운동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제주의병운동, 신교육운동, 문화운동, 해녀항일운동 등으로, 제주인의 존립의지와

3) 제주여성은 조선시대에 왜구의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예청'을 만들어 제주여성 지역의 관방시설을 지키는 데 적극 참여했다. 이것은 외부세력에 대항하는 제주사회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여성활동이었다.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8, 143-172쪽 참조.

주체성이 투영된 제주역사의 일부로 기록되고 있다.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제주 독립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의 공통성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는 양면성이 표출되었다.

셋째, 제주도는 해양수산물의 활용지였다. 제주도를 조선 최고의 어장으로 주목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이다. 일본 어민들은 일찍이 제주도의 풍부한 해양수산물에 주목하고 제주지역의 어로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어로활동은 제주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었고, 제주어민과 일본어민의 충돌로 경계심이 고조되기도 했다.⁴⁾ 이런 사례는 일본의 제주 해양수산물에 대해 관심이 이미 고조되어 있었다는 기록들이 보여준다. 이미 1900년경부터 일본무역상은 제주해산물의 상품가치와 시장성을 인정하며 주요 교역품으로 제주의 해양수산물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해산물은 제주도의 주요수입원으로 주목되는 등 그 가치가 높았다.⁵⁾ 이와 함께 관심이 부각된 것은 해녀노동이다. 제주도 해산물의 가치상승은 해녀노동가치의 상승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후 제주해녀의 역할과 그 영향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주해산물의 가치상승으로 제주 여성의 사회활동은 타 지역 여성보다 빠른 진척이 있었는데, 그 시대 여성이 사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제주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제주도의 소득증대가 비례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여성의 사회활동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주해녀의 활발한 사회활동은 인근 활동지의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주로 제주도와 일본지역을 넘어서서 대련, 칭따오, 부산, 울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생산영역과 활동이 확대되었다.⁶⁾ 이후 제주해녀의 활동확장은 제주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적인 해녀조합의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이 조직은 일제에 대항할

4) 『大阪毎日新聞』, 1887년 3월 8일자.

5)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49쪽.

6) 위의 논문, 151쪽.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며 일본의 부당한 대우와 부패에 대해 제주해녀가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지정학적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서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제주 독립운동의 특성

(1) 기존연구고찰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제주 독립운동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저서로는 제주도 발간의 『제주항일독립운동사』와 북제주문화원 발간의 『제주항일인사실기』가 유일하며 학술논문은 다수가 있다.⁷⁾ 『제주항일독립운동사』는 제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반적인 특징과 항일운동의 특성을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1909년의 제주의병운동에서부터 항일학생운동, 종교계의 항일운동, 3·1운동, 사회운동, 해녀항일운동, 제주인의 국외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항일운동의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연구시각을 지역적 특성에 국한해서 제주지역사와 제주 독립운동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항일운동의 특성으로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투쟁이 없었기 때문에 계급의식에 대한 각성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거나,⁸⁾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대

7) 근대시기 제주지역의 특성과 활동성을 대변하는 학술논문으로는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한급실, 「1940년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박찬식, 「개항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제68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 안형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 신교육운동 考」, 『한국교육논단』 제10집, 한국교육포럼, 2011; 김동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 경계』 제69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등이 있다.

8) 위 저서에는 제주도민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투쟁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濟州道(1996), 『濟州抗日獨立運動史』,

해서도 일제권력에 유착한 해녀어업조합으로서 마을공동체적 성격으로 일관하고 있다.⁹⁾ 이러한 연구관점은 지역사의 흐름에서 평가하고 지역 연구로 국한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며, 제주지역사 및 제주 독립운동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민족독립운동 전반의 관점에서 제주 독립운동이 갖는 위치를 정립할 때, 한국민족운동의 한 맥락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항일인사실기』는 제주항일운동의 개요와 일제강점기 제주의 침탈상 기술을 토대로 제주항일연지사와 제주항일인사 일람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일인사 일람에서는 국가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 외에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의 행적과 실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사학자의 헌신적 노력이 투영되어진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 외의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시기별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4.3 사건과 동북아평화실현을 위한 제주의 역할 등 지역사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제주 독립운동도 조선 중·후기 및 일제하의 제주경제, 운동방향 등에 접근한 연구로 다루어져 대체로 사건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착안하여 접근하거나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차원에서 전반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제주 독립운동은 반외세·반제국주의를 추구했던 민족운동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민족운동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제주도의 존립과 생계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운동동향을 보면, 일제탄압과 수탈에 저항한 민족독립운동, 인간적 대우의 부당함에 항거한 노동운동, 해녀항일운동으로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

45쪽.

⁹⁾ 저서에서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수산자본에 대결한 해녀항쟁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대결적 성격으로 국한함으로써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위의 책, 45쪽.

해서 시기별 제주 독립운동에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2) 시기별 독립활동

① 의병운동과 외부지식인의 입거: 1910년대

1910년 전후의 제주에는 한말의 긴박했던 환경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는 섬이기 때문에 본토와 소통은 일부 단절되어 있었지만 조선의 영향하에 있었고, 본토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었다. 특히 한말 조선사회의 변동과 일본 식민지 정책의 변화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제주도에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청일전쟁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 시기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와 대(對) 아시아정책의 전개로 일본의 한반도 독점지배는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해 제주지역은 일본의 경제 및 사회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는 일본의 노동과 자본의 활용지로 관심이 부각되었던 지역이다. 그 시기에 일본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조선을 일본의 소비시장 또는 일본 노동자의 식량공급지로 편성한 뒤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흡수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그 영향은 제주지역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었다.¹⁰⁾

1910년대 조선을 둘러싼 주변국가의 정세변화로 외부의 교류지였던 제주도는 제국과 식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에 제주 내부적으로는 저항적 항일의식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와 교류 및 소통의 영향으로 제주인의 항일의식은 강화되었다. 그것은 당시 제주도를 왕래한 소통 및 교류대상에서 나타난다. 그 시기는 육지(본토)교류, 외부세계교류(외국선박), 일본교류의 영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¹¹⁾ 육지(본토)교류는 제주인의 항일의식형성에 직

¹⁰⁾ 일본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조선은 일본 면제품의 소비시장으로, 일본노동자의 식량 공급지로 편성되어 일본의 경제구조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村上勝彦, 『植民地』, 『日本産業革命の研究』下, 東京大學出版會, 229~314쪽; 정문중 옮김, 『植民地』, 한울, 1984 참조.

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주로 제주지역에 파견되어 관리했던 목민관과 어사, 유배되었던 유배지식인이 대부분이다.¹²⁾ 물론 상인의 빈번한 출현도 있었으나 제주인이 본토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역사적 흐름을 공감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대부분 유배지식인이었다. 그 중에서 제주지역으로 유배왔던 최익현과 김윤식, 박영효로 이어지는 지식인의 사상전파는 전통과 근대의 접점에 있었던 제주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시기의 제주는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전초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교육과 사회, 사상적 소통 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대표적으로 최익현과 제주유림의 소통은 제주유림의 교학활동과 제주의병, 비밀결사체인 집의계(集義契)의 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1909년에 전개되었던 제주의병운동의 주도세력이 바로 최익현과 교류했던 제주유림이었다는 것에서 나타난다.¹⁴⁾ 최익현 이외에도 김윤식과 다른 제주지식인 간의 소통 및 교류는 기존의 보수적인 지식층에 편중되었던 제주지식인들이 개화사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부차적으

- 11) 제주지역은 외부와의 교류에 영향을 받았는데, 연구자는 크게 육지(본토)교류, 외부세계교류(외국선박), 일본교류의 영향으로 분류했다. 여기서는 육지(본토)교류가 항일의식형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외부세계로 분류한 외국선박과의 교류는 종교전파의 영향, 일본교류는 이후 사상 및 항일투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일차적인 영향을 주었던 육지(본토) 교류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 12) 당시 제주에 파견되었던 관리였던 목민관으로는 제주목사, 제주관관, 대정현감, 정의현감이 있었고, 어사로는 진휼어사 안핵사 등이었다. 김동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65쪽.
- 13) 당시 제주를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전초단계로 본 것은 이미 제주인은 천주교 유입과 봉건제도에 대한 반발로 1898년의 '방성철의 난'과 1901년의 '이재수의 난'을 통해 민중운동이 일어났고,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을 토대로 제주는 반외세 및 반봉건적 성격을 띤 저항의식형성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 있었다.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94-126쪽 참조.
- 14) 최익현의 공식적인 유배기간은 1873년 11월 4일-1875년 2월 8일이었으나 실제 거주기간은 1873년 12월 5일-1875년 4월 12일까지였다. 이 시기에 제주유림과 교학활동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 그들과 국가정세를 비판하는 토론 및 잦은 사회모임은 개화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영효는 제주지식인과 교류하며 제주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와 신학문 전파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가 유배로 머물렀던 시기에 근대교육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근대교육기관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1907년 1월에 개교했고, 7월에 중등교육기관인 ‘사립의신학교’, 1910년 5월에 ‘제주공립농립학교’, 1909년 ‘정의공립보통학교’, 1910년 ‘신성여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이 개교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¹⁵⁾ 이처럼 제주인과 본토지식인과의 교류는 제주인의 의식변화와 항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¹⁶⁾

앞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세 인물은 제주유배기간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지식인들과 소통을 했지만 이들이 준 영향은 단순한 교류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1918년 중문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대규모 항일운동인 ‘법정사 항일운동’¹⁷⁾이나 1919년 제주 3·1운동처럼 제주인의 항일운동에 주요한 정신적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제주신교육운동과 사회주의사상운동: 1920년대

1920년대 전후는 국내 상황이 급변했던 시기였다. 각 지역에서는 일본의 무단통치와 을사보호조약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민족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이 강행했던 조선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의 유린에 대해 우리 민족은 전국적인 민족저항운동으로 맞섰다. 제

15) 박영효의 공식적인 유배형은 1907년~1908년이었으나, 그는 형기 이후 3년간 제주에 머물러서 1910년 6월에 출륙했다. 0

16) 김윤식의 유배기간은 1897년~1901년 6월까지였다.

17) 法井寺 抗日運動은 1918년 10월에 중문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대규모의 항일운동이다. 400여 명의 주민의 참여 중 66명이 검거되고 2명의 옥사자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최고 10년에서 최하 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일본횡포의 부당함을 근거로 하여 일본관리, 일본상인의 도의 축출이 주 과제였다. 청년층에서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의 항일운동이다. 제주도, 앞의 책, 143쪽.

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는 유배지식인과 교류기반을 형성하며 개화사상과 신교육운동과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던 제주지역에도 일본이 진출하면서 주민들과 대립각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내의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1920년대의 제주는 크게 개화사상의 영향과 신교육운동, 문화운동, 사회주의 사상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자가 이 시기의 제주지역 사상운동의 흐름으로 지적하고 있는 신교육운동과 문화운동, 사회주의 사상운동의 배경과 성격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교육운동은 제주인의 근대의식의 형성을 기반으로 민족의식변화를 주도하며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의 신교육운동은 유배지식인이었던 박영효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 박영효는 공식적인 유배기간을 넘기면서 제주에 거주했고 지역의 신교육운동에 주력했다.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지식인의 노력은 종교전파와 신교육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신성여학교의 설립으로 현실화되었다.¹⁸⁾ 여기서 제주의 신교육운동은 기독교 확산을 위한 종교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국가의 신문물과 근대의식, 근대교육의 전파 등의 시도로 이루어진 학교설립은 지역 내의 교육기관 설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와 교육의 상관적 관계는 1919년 3월 1일에 본토에서 촉발된 민족만세운동과 제주인의 호응으로 전개된 활발한 독립만세시위 등에서 잘 나타난다.¹⁹⁾ 따라서 제주의 신교육운동은 제주인의 근대의식

18) 박영효가 제주지역의 천주교전파와 신교육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신성여학교의 설립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은 Lacroux 신부가 1908년 10월 1일자 Mutel 주교에게 보낸 서한의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저희에게 매우 호의적인 박영효라는 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도에 관의 인가를 받은 여학교 설립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저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교님께 전하고, 동시에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에 여학교를 운영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리자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교구연보(1878-1940)』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1984, 41쪽.

19) 1919년에 제주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조천만세운동이 대표적이다. 김시학, 김장환,

형성과 민족의식고취 의도가 맞물리며 애국계몽운동의 큰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문화운동은 당시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제주지식인의 각성을 토대로 제국주의의 저항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일본은 1910년 8월 이후 본격적인 식민통치정책을 감행하며 언론·집회·출판·결사를 비롯한 문화탄압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일본의 문화탄압정책에 대항하며 1920년을 기점으로 민족개조론의 맥락에서 문화주의가 제창되었고 조선의 신문화 건설과 역량증진을 목표로 한 문화계몽활동이 전개되었다.²⁰⁾ 제주도 1918년 문화발전의 취지하에 제주회원 간의 친목 도모 목적으로 ‘제주청년수양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김명직(金明植)의 주도하에 좌익성격의 잡지인 『신생활(新生活)』이 창간되었고, 이어 1925년에는 〈신인회〉의 조직, 1928년에는 〈신간회〉 제주지부가 결성 등 1920년을 전후하여 제주는 사상과 문화가 결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운동은 신문화주의를 주장했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일면으로 사상과 노동운동이 결합된 민족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운동이다. 제주지역 사회주의 사상운동의 배경은 일본과 제주의 밀접한 관계구도에서 드러나는데, 일본 내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주인의 노동진출이 결합된 부산물이었다. 일본과 인접했기 때문에 제주노동자의 일본진출로 제주는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됨과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항일의식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제주노동자는 일본에 인권탄압개선,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을 주장했고, 이것은 항일의식과 맞물려 항일저항운동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 대판(大阪)지역과의 교류는 일본인과 제주인의 갈등을 더

김시우, 김시범2, 김시은 등과 박두규의 서당학동 들이 총동원되어 미모치(味毛峙·미뫼동산)에 집결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만세 삼창을 부르며 시위행진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다수인이 옥고를 치루었으나 조천은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인정받았다. 김찬홍,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 2005, 13쪽.

²⁰⁾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77쪽.

육 심화시키면서 제주항일운동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²¹⁾ 일찍이 제주 인들은 일본의 약탈에 대해 항의해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이후 경제적 약탈과 해양수산물 채취, 해녀노동, 노동인력의 활용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민족항일운동은 촉발된 것이다.

1920년대 제주지역은 시대변동과 제주내의 변동요인이 맞물리는 상황에 놓였다. 근대의식의 전파와 일본약탈로 인해 항일의식이 고취되었고, 애국계몽운동과 문화운동, 사회주의 사상운동 등 저항적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했다. 그 중에서도 신교육운동은 제주내의 자발적인 의식형성을 기반으로 실천되었던 반면, 문화운동은 제국주의의 부당함과 국제주의의 노선에 대한 추종의 영향으로 나타났고, 사회주의 사상운동은 제주인의 일본진출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주의 사상에 편승되어 저항운동으로 표면화되었다.

③ 해녀항일운동과 제주야채이카사건: 1930년대

1930년대의 제주는 기존 항일운동과 달리 대중적인 항일운동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녀항일운동’이 언급된다. 해녀항일운동은 단순히 해녀중심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이 아니라 제주지역 여성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입지변화를 기반으로 대외적인 여성단체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에 해녀항일운동은 여성단체인 ‘제주해녀어업조합’의 결성을 토대로 대중운동에서 제주여성이 주체로 부각된 이례적인 항일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제주환경변화를 조망해보면, 일제침략에 대해 사상과 노동, 여성, 학생운동 등 각 부문에서 활발한 항일투쟁을 해왔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제주인의 항일투쟁 의지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제주 야채이카 사건’과 ‘일본반제동맹활동’

21) 일제통치로 인해 제주의 경제의 침탈은 본격화되었는데, 그것은 1923년의 대판항로 개설, 1930년의 동아통선조합, 1925년의 재일보조선노동총동맹결성 및 1927년의 쟁의, 1930년의 전협화학도노동대판지구책임자의 파업투쟁 및 검거 등으로 이어졌다. 濟州道, 앞의 책, 56쪽.

등의 사건에서 민족독립을 위한 제주인의 강력한 항일의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아진다.

먼저 제주해녀항일운동은 대중적 여성항일운동으로 제주여성의 확고한 목적의식과 항일의식을 표출한 항일투쟁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수성과 제주해양산물의 가치, 여성의 사회입지 등을 여실히 드러냄과 동시에 제주여성이 합당한 노동대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점과 항일의지를 단체활동을 통해서 피력했다는 점 등에서 주목된다.²²⁾ 제주도 해녀조합이 1920년에 창설된 후, 일본의 식민지화과정에서 제주여성은 생존권확보와 항일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성시기와 생성목적, 전반적인 과정에서 살펴볼 때,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제주해녀의 항일의식을 기반으로 한 대중운동의 성격임이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제주해녀항일운동을 기점으로 한반도 해안각지에서 어업조합설립이 출현했고, 거제나 남해 등에도 제주해녀들이 출가하여 해녀어업조합의 형태와 유사한 조합들이 설립되기도 했다. 따라서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의미를 지역운동으로 평가하기보다 추후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연구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야체이카 사건은 제주인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대중운동이다. 제주 야체이카 사건은 1920년대 해외 독립운동의 조류로 나타났던 코민테른 제2차대회²³⁾의 흐름과 같이하고 있다.²⁴⁾ 1929년의 세계 공황과 그 여

²²⁾ 제주해녀의 출가인원과 어획규모를 살펴보면,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제주해녀의 출가인원은 1929년경 3,500명이었고 어획고가 50여 만 원이었고, 제주도내 작업인원은 7,300여 명이고 어획고는 25만여 원이었다. 또한 1932년에는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원의 총 수가 8,862명이었는데, 그 중 57%인 5,078명(일본 1,600명, 한반도 3,478명)이 출가한 인원이었다. 『濟州道, 앞의 책, 197쪽 재인용: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²³⁾ 코민테른 제2차대회에서 채택된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의 흐름에 지지를 표명했던 국민대표회의의 흐름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 된다.

²⁴⁾ 초기 사회주의운동은 시베리아와 연해주, 상해, 북경 등지의 해외중심을 전개되었다. 여기서 한인사회당이 결성된 1918년부터 국민대표회의가 끝나는 1923년까지의 시기를 초기 사회주의 운동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이후 노동자와 농민의 각성을 통해서 민족해방운동을 주장한 사회주의운동으로 나타났다. 서중석

파로 일본은 생산성 향상정책에 주력하며 노동자 감축, 장기간 노동,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 자력회생을 시도했는데, 그 시기에 일본에 진출했던 제주노동자들이 노동환경변화에 대해 항일투쟁을 한 것이다. 또한 그 시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 진출했던 노동층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항일저항운동은 이후 제주청년동맹과 제주혈우동맹, 농민요구투쟁동맹테제 등과 연결되어 제주의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흐름으로 주도했다.²⁵⁾ 사회주의 사상이 제주로 유입되면서 노동인력은 물론 제주청년과 일반인, 학생이 참여하는 항일운동의 성격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1930년대 제주의 대표적인 제주해녀항일운동과 ‘제주야체िका 사건’은 지역민의 자주적인 주도로 전개된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주인의 ‘일본진출 및 사회주의 사상’의 교류는 제주항일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사회주의사상이 제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노동+사상+여성운동’이 결합되는 항일운동의 성격이 나타났다.

④ 종교·노동·사상운동의 외부확산: 1940년대

제주에서 1920년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상운동은 1935년을 고비로 대중운동이 쇠퇴하면서 소규모 형태로만 나타났다. 1940년 전후의 제주 독립운동은 전 지역의 항일운동화로 참여계층이 확대되며 기존의 항일의식이 종교와 결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활동의 다변화와 항일운동확대로 인해 민족의 의식화현상이 사회로 표면화되었음을

(1985),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朴玄採·鄭昌烈(편), 『韓國民族主義論 III』, 創作과批評史, 272쪽.

²⁵⁾ 제주 야체िका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 제주의 사회주의운동 및 항일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비록 관련자 16명이 구속 송치되었으나, 1930년대 제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항일운동이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염인호, 「일제하 제주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전환과 〈제주 야체िका〉사건」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연구 되어있다.

말해준다. 더욱이 제주는 종교인의 항일운동과 외부항일활동이 상호 영향을 주며 확장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항일운동은 초기에 교육, 사상, 노동 분야의 투쟁이 주를 이루었으나, 1940년 전후는 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정연한 교육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일반인에서 청년운동으로 주도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941년 제주농업학교의 ‘朝鮮獨立萬歲落書事件’은 학생들이 일본교원을 지목하고 무수한 낙서를 하여 전시체제하에 있었던 일본에 더 극한 항일운동으로 맞선 사건 등에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²⁶⁾ 이처럼 제주는 일본의 전시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격화되고 과감한 항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제주의 대표적인 종교사건을 살펴보면, 1936년의 무륵 대도교 사건과 1938년 미륵교 사건, 1941년 천주교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종교의 구분을 넘어서서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부정과 조선독립을 염원했다. 특히, 무륵 대도교 사건에서는 20여명이 검거되어 형량을 언도받는 등²⁷⁾ 제주 항일운동은 외부종교와 결합하여 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 일본은 종교사건에 과한 형량을 부과했는데, 전시체제에 접어들었던 만큼 조선 독립의 주장을 했던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한 형량을 언도했다.

1940년 전후의 제주는 내부적으로 활발한 항일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도외항일활동이 확장되었다. 제주인의 도외항일활동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전라지역과 연계된 활동에 관여되어 광주학생운동이나 독립자금 모금활동, 학생전위동맹사건 등의 관련자로 검거되거나 형량을 언도받았다. 이러한 시대변동과 제주지역의 항일운동을

²⁶⁾ 濟州道, 앞의 책, 62쪽.

²⁷⁾ 이들은 1937년 말에 일제에 검거된 뒤 1940년 12월에 광주법원에서 형량을 언도받았다. 강승하 징역 6년, 강석구 징역 4년, 김태휴 징역 3년, 김창규·양창언·오승언·오병표·이두표·강창호·현시화·김문일은 각 징역 2년 6월, 강종욱 징역 2년, 문두철·이성예·고무생은 각 징역 1년 6월, 오정식·김인옥·양기현·장원국 징역 1년, 고두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는데, 형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일본은 폐망되고 조선은 독립된다고 예언한 내용이 무거운 형량부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濟州道, 앞의 책, 376쪽.

고려할 때, 1940년대는 제주내부의 활발한 활동에 도외항일활동이 더해지면서 ‘노동+사상+여성+학생+종교’가 결합된 총체적인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제주 독립유공자 현황분석

1) 대상자분석

(1) 훈격별 현황

한국근대시기 제주는 민족해방을 위해 주체적인 항일운동을 시도했다. 그것은 앞서 1910년부터 1940년 전후의 제주 독립운동의 변화에서 언급되었듯이 본토와 섬의 구분 없이 일본이 전 지역을 탄압하고 강제수탈, 강제동원을 했다는 것에서 연유된다.²⁸⁾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지역은 섬지역의 특성과 일본과의 인접, 제주내의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제주독립유공자 현황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국외항일활동부문에서 일본 야체이카사건이나 해녀항일운동, 종교활동 등으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본토와 떨어져 있었던 제주지역의 특성을 대변한다. 그러면 제주독립유공자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부문별 현황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²⁹⁾

제주지역 독립유공자를 훈격별, 운동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훈격별 구분은 훈격 예우에 대한 구분으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3년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건국훈장은 80명, 건국포장 40명, 대통령 표창 27명으로 총 147명이

²⁸⁾ 이번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제주의 여성정신대동원과 강압사례도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²⁹⁾ 대상자의 분석에 있어서 제주 독립운동은 제주지역출신자뿐만 아니라 도외 지역 출신자의 활약도 포함하고 있다.

인정받은 것으로 통계분류되어 있다.³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국 훈장의 대상자 중에서 대한민국장과 대통령장, 독립장의 제주지역 대상자는 없는 반면, 애국장과 애족장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 분포의 결과에서 볼 때, 제주지역은 다소 훈격이 낮은 쪽으로 편중되어 지역의 독립운동이 평가절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소견을 가진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동상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검증, 이를 토대로 제주 독립운동의 특성과 그 성격을 재해석·재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역은 독립운동가의 인정시기에 있어서도 본토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초 독립유공자의 인정시기였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볼 때, 제주 독립유공자 인정의 수는 거의 없으며,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유공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그것은 이후 다루어질 <표 3>에서, 1990년부터 대상자 선정기록을 분류하고 있다. 1990년 이후 5단계훈격에서 7단계훈격으로 조정되어 기존 대상자의 훈격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제주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현황 및 유공자의 발굴과 재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여성독립운동가 강평국(1900-1933)의 경우, 경성여고 재학 중 제주출신 최정숙과 3·1운동을 했고, 일본유학 후 항일단체 근우회 지부장을 맡으며 독립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독립유공자의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일부 인물의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연구 및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처럼 제주독립유공자 현황과 운동계열별 현황자료를 토대로 <표 1>로 도표화했는데, 대상자의 훈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³¹⁾

³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처 자료나 제주항일기념관의 애국선열정보에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http://hangil.jeu.go.kr/>(2013.8.30).

³¹⁾ <표 1>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검색일 2013.08.30)과 제주항일기념관의 애국선열정보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분류하여 도표화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영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국내인정대상자는 147명에 해당된다.

〈표 1〉 제주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

(2013년 8월 30일 현재)

훈격예우구분							총 인원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0	0	0	14	69	40	27	150

(2) 운동계열별 현황

제주의 대표적 항일운동은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 법정사항일운동으로 구분된다. 1919년 3·1운동시기의 조천만세운동은 3월 21일의 1차 만세운동에서부터 3월 24일의 4차 만세운동에까지 전개되었다. 제주 3·1운동은 조천 오일장을 기점으로 극에 달했으므로 이후 제주인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조천만세운동은 제주인의 항일의식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제주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천만세운동에서 발휘된 항일저항정신을 비롯하여 제주의병운동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제주의병운동은 제주항일운동의 확산에 있어서 정신적 근간이 되었지만 현재 의병부문의 독립유공자는 애국장 2명, 애족장 1명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다.³²⁾ 이와 관련해서 의병부문의 독립유공자 발굴확대와 관련자 발굴에 주력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체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12,800여명에 대비해서 볼 때 144명이 인정되고 있다. 의병부문에서 3명, 3·1운동으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애족장 4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 13명이다.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표창 부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제주지역 3·1운동의 활동상과 활동범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

³²⁾ 제주의병운동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1990년에 인정받은 고사훈, 김석윤과 1995년에 인정받은 김만석 3인이 있다.

아진다.

문화운동부문은 1990년에 인정받은 애족장 부병준과 1993년에 인정받은 건국포장 부생중 등 2명이다.³³⁾

국내항일운동은 애국장 10명, 애족장 45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7명이 인정받고 있다. 국내항일운동 부문은 제주 전체 독립유공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인정받은 부문으로 초기 대상자를 인정했던 1990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발굴인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운동은 애국장 1명, 애족장 7명, 건국포장 6명, 대통령 표창 5명이 인정받고 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의 인정이 제주독립유공자의 최초인정시기였던 1990년에 4명, 1992년에 1명, 1993년에 8명, 1995년에 4명, 1999년에 1명 등 활동부문에 대한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학생운동은 제주 독립운동의 한 맥락을 차지했다고 파악된다.

광복군 활동은 1993년에 인정받은 문덕홍 1명이다. 문덕홍은 대한민국 임정과 광복군 항일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의사의 경호대장이었던 인물이다.³⁴⁾ 특히 문덕홍은 제주인의 국외항일활동과 광복군 활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애국계몽운동은 1990년에 인정받은 고순흠 1명이다. 고순흠은 제주공업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신민회계열의 비밀단체였던 대동청년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 제주에서 조선통신중학관을 개설하고 통신 중학강의 록을 발간하는 등 지역의 애국계몽운동에 힘썼다. 그런데 제주의 신교육운동의 흐름과 근대교육기관설립의 영향을 고려할 때, 애국계몽운동으로

³³⁾ 부병준은 1882년에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에서 1990년에 애족장으로 훈격이 조정되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기준은 1990년 이전의 5단계 훈격에서 7단계로 변경되었다. 북제주군 북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제주항일인사실기」에 부병준(352쪽)의 세부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찬흠, 앞의 책, 352쪽.

³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북제주군 북제주문화원에서 발간한 「제주항일인사실기」의 문덕홍(321쪽)에 세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책, 321쪽.

인정된 인물이 1명인 점은 의문점이 남는다. 제주 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수와 활동을 고려할 때, 애국계몽운동은 제주항일운동의 한 주류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애국계몽운동으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는 단 한 명이라는 점은 관련한 인물에 대한 추가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본방면활동은 애족장 1명, 애족장 10명, 건국포장 4명이다. 일본방면 활동은 제주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문에 해당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제주인의 확고한 항일 의식과 존립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즉, 일본방면활동은 제주인의 활동영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인이 도내에서 주체적으로 항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당위성이 피력된 부분이다. 현재 이 부문의 독립유공자는 15명에 그치고 있지만 이 부문의 연구 및 발굴이 제주지역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앞서 언급되었던 제주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별 현황은 <표 2>에서 정리하여 도표화하였다.³⁵⁾

추가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전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대상자 150명 중 타 지역 출신자가 6명과 외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지역 출신자인 144명 외에 김연일, 김인수, 정구용은 경북지역 출신자이고 김남식, 윤기옥은 전남지역 출신, 전영일은 평남출신이다. 또한 영국출신의 선교활동으로 입국하여 제주천주교사건에서 활약하여 인정을 받았는데, 주로 선교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되며 Augustine, Patrick, Ryon이 1999년의 인정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35) <표 1>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검색일 2013.08.30)의 자료를 토대로 분류하고 도표화했다.

〈표 2〉 제주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³⁶⁾

(2013년 8월 30일 현재)

순 번	독립유공자 현황					
	운 동 계열구분	훈 격 계 열 별 현 황				계열별 인원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	의 병	2	1			3 명
2	3 . 1 운 동		4	2	13	19 명
3	문 화 운 동		1	1		2 명
4	국내항일운동	10	45	26	7	88 명
5	학 생 운 동	1	7	6	5	19 명
6	광 복 군			1		1 명
7	애국계몽운동		1			1 명
8	일본방면활동	1	10	4	2	17 명
총 인 원		150명				

2) 활동부문별 분석

(1) 대상자 인정시기별 특성

제주지역의 대상자 인정시기와 제주지역에서 발간한 『제주항일인사실기』를 살펴보면, 제주활동인물의 행적은 1990년 이후 훈격단계의 조정으로 재부여된 인물이 있었다.

대상자 인정시기별로 대상자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면, 1990년에 인정된 대상자는 애국장과 애족장에서 훈격을 인정받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내항일, 의병, 학생운동, 3·1운동, 일본방면, 문화운동, 애국계몽운동 등으로 인정을 받은 인물이 24명이다. 1992년에는 애족장, 대통령표창, 건국포장 등에서 훈격을 부여받았지만 대상자는 4명에 그치고 있다. 1993년에는 독립운동관련 많은 인물이 인정받았는데, 애국장 3명, 애족장, 14명, 대통령 표창 11명, 건국포장 30명 등으로 추가발굴을 통해서 인

36) 〈표 2〉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검색일 2013.08.30)과 제주항일기념관의 애국선열정보자료를 토대로 훈격계열별 현황과 인원을 분류했다.

정을 받았다. 이어 1995년에도 애족장, 애국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부문에서 대거 인정받았다. 그러나 1996년부터 현재까지 추가발굴자는 1992년, 1993년, 1995년의 대상자 인정에 비해 10여 명내로 발굴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표 3>에 제주독립유공자 시기별 훈격 현황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했다.³⁷⁾

<표 3> 제주독립유공자 시기별 훈격 현황

(2013년 8월 30일 현재)

년도 구분	훈 격 예 우 구 분				해당 인원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990년	3	21			24 명
1992년	1		1	2	4 명
1993년	3	14	30	11	58 명
1994년		1			1 명
1995년	4	21	3	7	35 명
1996년	2				2 명
1997년				1	1 명
1998년		1			1 명
1999년	1*	3*		2	6 명
2000년		2	1	2	5 명
2002년		1			1 명
2005년		1	1		2 명
2006년		3	2	1	6 명
2007년				1	1 명
2008년		1	2		3 명

(총 대상자: 150명) *표기: 영국출신 외국인 3명 포함 내용임.

37) <표 3>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검색일 2013.08.30)과 제주항일기념관의 애국선열정보자료를 토대로 분류하여 도표화했다.

(2) 활동부문별 특성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운동계열의 내용에 따라 9 부문, 국외 항일운동의 지역에 따라 7부문 총 15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주지역의 독립유공자는 8부문에서 인정받고 있고, 5부문에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다.³⁸⁾ 관련하여 제주 독립운동의 활동부문별 현황과 그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주의 의병활동은 제주도내 3·1 만세운동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했다. 제주유림세력과 유배지식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주유림은 국제정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놓인 조선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비판의식을 가짐으로써 제주유림이 중심이 된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초를 마련했다.

제주의 3·1운동은 제주지역민의 저항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토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 3·1운동은 항일민족운동으로 제주인의 존립을 위한 정신적 근거를 마련해준 사건이었다. 제주는 본토의 독립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제주내의 항일정신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3·1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주의 애국계몽운동과 신교육운동, 문화운동 등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민의 항일의식과 민중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제주의 3·1운동은 제주존립의지와 민족독립운동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제주의 국내항일운동은 제주인의 항일의식이 일련의 사건으로 집약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항일운동은 교육, 사상, 노동, 여성,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각 분야별·부문별 사건들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사건들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민족운동

³⁸⁾ 민족독립운동과 국가보훈정책적용에 관해서는 연구자의 「국가보훈과 민족독립운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에서 언급하고 있다.

흐름의 연장이자 그 일환으로 제주인의 반제국주의·반외세의식이 발휘된 항일운동이었다. 특히 제주의 학생운동은 제주뿐만 아니라 외부지역과 소통 및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발휘된 항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영국인의 제주진출과 제주천주교사건에 개입된 점, 경북 출신의 인물이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연관되었다는 것은 타 지역민의 제주 입국과 제주지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제주독립유공자의 시기별 활동부문 및 인정대상자³⁹⁾

(2013년 8월 30일 현재)

년도 구분	시기별 활동부문 및 인정대상자현황								인원
	의병	3.1 운동	문화 운동	국내 항일	학생 운동	광복군 활동	애국 계몽 운동	일본 방면 활동	
1990년	2	3	1	8	4		1	5	24 명
1992년		2			1			1	4 명
1993년		8	1	37	8	1		3	58 명
1994년				1					1 명
1995년	1	1		27	4			2	35 명
1996년				2					2 명
1997년		1							1 명
1998년				1					1 명
1999년		1		4*	1				6 명
2000년		2		1				2	5 명
2002년				1					1 명
2005년				2					2 명
2006년				3				3	6 명
2007년				1					1 명
2008년		1						2	3 명
(총 대상자: 150명) *표기: 영국출신 외국인 3명 포함내용임									150명

39) 〈표 4〉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검색일 2013.08.30)과 제주항일기념관의 애국선열정보자료를 토대로 시기별 활동부문을 분류하고 대상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인의 일본방면활동은 노동자들의 일본진출을 계기로 확고한 항일 의지가 구축되어 항일운동으로 발휘되어진 것이었다. 확고한 제주인의 항일투쟁의지는 제주 야채이카 사건과 대판 관련사건, 일본 반제동맹활동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제주인의 일본진출은 일본의 제주식민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하고 제주인의 자존의식을 확보한 가운데 항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주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 중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은 인원 중 다수가 일본방면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에서 알 수 있다.

4. 결론: 제주 독립운동의 함축적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제주지역은 그 활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접근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의 부족으로 주 관심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과거 문헌기록에서처럼 제주지역은 주로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지식인이 유배를 가는 곳이자 본토와 다른 섬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특수성을 조망해보면 이 지역의 중요성은 다시금 주목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일본과 가장 근접했던 지역으로 일본과 교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제주인의 일본진출로 일본방면 항일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최남단 경계지역이 바로 제주 지역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주의 위치는 시대의 구분 없이 전략적·산업적·지리적으로 주목받았던 중요한 요충지였다. 물론 지금도 제주의 국제적 위상과 지리적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과거역사의 중요성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파했던 일본은 대륙진출과 해양수산자원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에 진출했다. 그리고 일제강점으로 제주 탄압이 가시화되었지만, 그에 항거하는 제주인의 저항의지와 자존의지는

성별과 연령을 넘어서는 항일저항운동으로 일관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제주독립운동의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연도별 특성과 활동현황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그러면 제주독립운동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연구자는 제주 독립운동을 연도별로 그 특성을 정리하면서 한국민족운동의 한 흐름인 항일운동의 큰 틀에서 보았다. 그 틀에 견주어볼 때, 제주 독립운동은 ‘항일의식형성기-사상운동기-항일투쟁기-항일운동확산기’의 흐름으로 의식화되었고, 독립활동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 독립운동의 특수성을 포함한 그 전반이 한국독립운동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주인의 항일투쟁의식은 바로 민족의식의 표출이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제주내에서 전개된 항일운동의 주변 변수로서 인식되는 외부 지식인과 영국선교사, 일본진출 제주노동자, 제주에 거주했던 타 지역민이 지역민과 소통하며 통합함으로써 자립갱생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만약 외부인과의 소통이 없었다면 제주 독립운동은 자생적 방향을 찾거나 지역독립운동으로 부각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독립운동은 외부와 내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항일운동의 상승되어 한국민족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앞서 제주 독립유공자의 현황분석에서 살펴보면, 국내항일운동과 3·1운동, 학생운동부문에서 많은 대상자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가 시대변화에 편승함과 동시에 한국독립운동의 틀에서 제주 독립운동을 실천한 결과였다. 특히 제주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둘 때, 일본방면활동으로 다수의 독립유공자가 인정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본방면활동과 학생운동에서 독립 유공자 인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항일활동에 주력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본과 제주를 오가며 활발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 주목하고 제주독립운동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성 확보와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주 독립유공자의 각 부문별 인물에서 애국계몽운동 부문은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제주의 신교육운동에 대한 추가 연구와 점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제주지역 교육환경의 우수성과 높은 교육열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근대시기 제주에서 전개되었던 신교육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바로 그 전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교육정신의 정립을 위해서 추가 연구는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대시기 제주의 학교설립과 교육의 활성화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추구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독립운동의 명확한 특성과약을 통해서 본토와 연계되는 활동확인 및 부가자료의 발굴진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주와 전라간의 활동, 제주와 경북간의 활동 등에 주목하고 관련된 사건과 인물의 파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제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활동을 토대로 관련한 지역연계연구도 부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지역연구를 토대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제주 독립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때, 그 위치의 정립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처럼 제주 독립운동은 단순히 제주지역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 독립운동은 한국민족운동을 대변하는 지역독립운동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제주지역의 특수한 주변 환경 및 영향에 근거를 둔 제주 독립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제주지역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도 한국독립운동의 한 맥락으로 분류되고 그 성격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독립운동사의 정립과 제주 독립운동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며, 제주 독립운동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독립운동은 앞으로 추가연구 및 발굴, 특성, 정립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13. 11. 10 / 심사완료일 : 2013. 11. 30
- 주제어 : 제주독립유공자, 민족해방운동, 제주의병운동, 제주3.1운동, 일본항일
활동, 한국민족운동

K C I

❖ 참고문헌

-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
- 국사편찬위원회 편, 『폭도토벌개황』(假題), 1997(일본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의 『千代田史料』 수집 자료).
- 권영배, 「격문류를 통해 본 구한말 의병항쟁의 성격」,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5.
- _____, 「대한제국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의병 탄압」, 『朝鮮史研究』 19, 2010.
- 김동성, 『한국민족주의연구』, 도서출판오름, 1995.
- 김동진, 「근대 제주지역 지식인의 외부세계 소통과 활동」,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政治』, 박영사, 1988.
-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8.
-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 _____,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2009.
- 김찬흡,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군, 2005.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 박용옥, 『한국여성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역사민속학』 제2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_____, 「개항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제68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
- 朴玄採·鄭昌烈(편), 『韓國民族主義論 III』, 創作과 批評史.
-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교구연보(1878-1940)』 천주교부산교구사자료집 제1집,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1984.
- 서중석,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朴玄採·鄭昌烈(편), 『韓國民族主義論 III』, 創作과 批評史, 1985.
- 신용하, 『3·1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심옥주, 「국가보훈과 민족독립운동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1권 제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 안형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 신교육운동 考」, 『한국교육논단』 제10집, 한국교육포럼, 2011.
- 유영옥, 『국가보훈학』, 흥익재, 2005.
- 濟州道, 『濟州抗日獨立運動史』, 濟州道, 1996.
- 村上勝彦, 「植民地」, 『日本産業革命の研究』 下, 東京大學出版會, 1975.
-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 경계』 제69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정문종유평, 『植民地』, 한울, 1984.
- 조동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 (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도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금실, 「1940년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역사민속학』 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 허호준,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 『한국민족문화』 40,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大阪毎日新聞』, 1887년 3월 8일자.
- 『鎮西日報』, 1985년 4월 15일자.
-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선열정보: [http://hangil.jeu.go.kr/\(2013.8.30\)](http://hangil.jeu.go.kr/(2013.8.30)).

❁ 국문요약

일제강점기 제주독립운동의 지형과 독립유공자 현황 분석

심 옥 주

본 연구는 한국민족운동의 범주에서 제주독립운동의 지형을 고찰하고, 제주독립운동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은 본토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은 전략적, 산업적으로 요충지였으며 외부세력의 교류지였다. 또한 제주 해양수산물의 상품가치와 시장성은 1900년경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해양수산물의 부각은 제주해녀노동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항일운동의 한 부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활동양상이 본토의 성격을 대변하거나 그 흐름에 편중되지는 않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지역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지역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토대로 독립운동의 활동양상을 분석했는데, 의병운동에서부터 학생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8개 부문에서 대상자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일본방면활동의 인정대상자가 많았는데, 그것은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시대변동이 항일구국활동으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는 훈격별 현황, 운동계열별 현황, 대상자 인정시기, 활동부문별 특성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독립운동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제주독립운동은

독립유공자 추가연구 및 발굴, 지역특성의 부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대변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

K C I

❁ 영문요약

Geographical Features of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and Analysis
of Independence Meritorious Men Status

Sim, Ok-Joo

This study has contemplate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category of Korea's racial movement and examine the connotative meaning of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Jeju Island has been researched by local scholars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eing away from the mainland. Historically, Jeju Island had been strategic and industrial key point as a place of exchange for outside influence. Also, the product value and marketability of Jeju Island's marine products have been recognized since around the year 1900. The emergence of marine products could grow as one category of anti-Japanese movement by being connected with the increased labor value of Jeju Island's female divers. Although the geographical activity phase of Jeju Island does no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mainland or lean toward such trend, it has been viewed as having necessity to approach from more macroscopic perspective considering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regionality of Jeju Island. While the activity phase of independence movement has been analyzed based on the status of independence meritorious men in Jeju Island, the candidates were getting recognized in 8

sectors including from patriotic soldier movement to student movement an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etc.

Especially, while Jeju Island region had many candidates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ward the direction of Japan, it is determined that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change of times had impact on getting spread as anti-Japanese national salvation activity. Specifically, the independence meritorious men ha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us by level of merit, status by series of movement, recognition period of candidates and the characteristics by activity sector, etc. Looking based on the research seen as above, the Jeju Island independence movement at this time requires attempt of multilateral research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ce movement represen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an be highlighted while harboring the tasks such as additional research and discovery of independence meritorious men or highligh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Independence Meritorious Men of Jeju Isl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Jeju Island Patriotic Soldier Movement, Jeju Isl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ti-Japanese Movement, Korea's Racial Movement